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담론을 한 방향으로 모아 가는 의견수렴 과정이오니, 연구원의 의견을 토대로 보다 발전적인 대안들이 모색되기를 기원합니다.

JDI OPINION <제96호>

제주올레(Jeju-Olle)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성 용

I. 올레의 정의 및 유래

제주올레는 제주의 바람을 느끼고 돌담을 끼고 돌며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며, 제주의 흙과 돌을 밟고 천천히 걷고자 만들어졌다. 이러한 제주올레를 찾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여행사나 타인에 의해서 꼭 짜여진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체험형태로서 자연을 느끼며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것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¹⁾.

제주올레²⁾는 2007년 9월 1코스를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14개 코스가 개설되었고 제주올레를 다녀간

올레꾼이 13만명 이상일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가 인정한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걷고 쉬며 놀며 체험하는 제주올레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과 외국인들의 발길도 찾아지고 있다.

올레³⁾란 제주어로 ‘거릿길에서 대문까지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뜻한다. 중세어로는 ‘오라’, ‘오래’이며, ‘오래’는 문(門)을 뜻하는 순 우리말 ‘오래’가 제주에서는 ‘올레’로 굳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⁴⁾. 제주의 올레는 놀이 및 생활의 장이며 공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으로 들어가는

1) 올레꾼 대상으로 한 모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제주올레에 대한 재방문 의지가 높고, 제주올레 탐방 시작시 시점까지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80%인 것으로 확인됨
 2) 비영리법인인 (사)제주올레에서 제주올레코스 개설을 시작으로, 자발적인 유지관리 및 홍보와 올레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3) 올레는 예로부터 생활공간, 놀이공간이었고 추억이 담긴 공간임
 4) (사)제주올레 홈페이지 참조

전이 공간이다.

최근에 관광의 섬 제주에서 느낌의 공간, 사색의 공간, 체험 공간으로 올레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제주올레'로 재탄생하였다. 또한 '제주올레'는 발음상 '제주에 올레?', '제주에 오겠니?'라는 이중의 의미⁵⁾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올레가 주는 어감의 친밀성으로 인해 2009년부터 A사에서 '올레(olleh)'를 모토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hello'를 역순으로 표기한 것으로 감탄사이면서 '올레'를 기업의 홍보모토로 활용하고 있다. 즉 제주올레서 비롯된 '올레'라는 용어가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제주올레가 어떻게 이용되고, 올레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향후 제주올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하고자 한다.

현재 개발된 모든 코스를 조사하는 것은 물리·시간적으로 한계와 유사점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 개설된 1코스와 올레꾼들이 많이 찾는다는 6·7코스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현상항에 대한 진단, 개선방안 및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진 1) 올레 사례

II. 제주올레 일반 현황

1. 제주올레 일반 현황

현재 제주올레는 14코스에 총 16개의 제주올레길이 개설되어 있고, 제주올레 1코스를 시작으로 제주의 해안선을 따라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시설관광지 관람 위주에서 탈피하여 제주의 자연을 느끼며 체험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제주올레이다.

현재 개발된 제주올레의 코스개발은 가능하면

콘크리트길을 배제하고자 노력한 탓에 돌담길, 밭길, 숲길, 하천길, 나무데크(산책로)의 바닷길, 자갈한 돌이 덮인 바닷길, 모래길 등이 대부분이지만 연결구간에서 일정부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에 있다.

제주올레 1코스는 시흥에서 광치기해변까지이며, 제주올레에서 가장 먼저 열린 길이고 돌담에서 오름과 바다로 이어지는 코스이다.

제주올레 1코스 시점부인 시흥초등학교 옆에는 안내소와 화장실이 갖추어져 올레꾼들을 맞이하

5) "놀멍 쉬멍 걸으멍 제주걷기 여행", 서명숙, PP39-40



(그림 1) 제주올레 1코스 노선도



(사진 2) 제주올레 1코스 전경

고 있다. 시점에서 돌담길이 시작되고 말미오름과 알오름으로 이어지며 말미오름까지의 밭사이로 걷는 길은 농사짓는 들판과 돌담과의 조화를 만끽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곳을 제주올레1코스로 정한 것은 시작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할 만큼 가치있다고 판단하여 이 곳을 택했다⁶⁾고 한다. 1코스의 돌담과 목장길, 외로이 서있는 소나무, 역새길은 한폭의 그림과 같은 풍광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진 3) 돌담길과 목장길 등의 전경(1코스 중)

제주올레 1코스에는 길 안내표시(바로, 거꾸로)가 사진4와 같이 되어 있고, 올레꾼들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이 설치한 매점이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주올레 1코스 뿐만 아니라 각 코스별로 현황

과 장단점이 있을 것이지만 현지코스 조사시 나타난 문제점 위주로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조사한 곳은 제주올레 1코스, 2코스, 6코스, 7코스이며, 3절에서의 논의 역시 이들 4개 코스를 토대로 전개하였다.

6) “놀멍 쉬멍 걸으멍 제주걷기 여행” 참조, 서명숙, 2008.9



▶ 올레1코스 시점 표지판



▶ 올레1코스 시점



▶ 안내소 및 화장실



▶ 코스표시(바로, 거꾸로)



▶ 매점(자생적으로 생김)



▶ 일주도로와 만나는 지점

(사진 4) 제주올레 1코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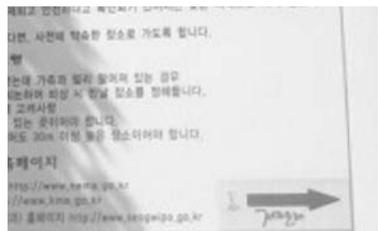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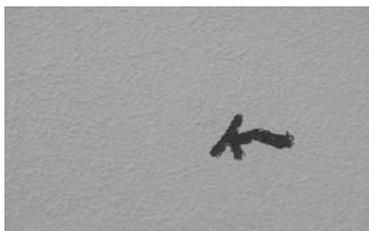
Ⅲ. 제주올레 이용 현황 및 문제점

1. 안내체계 및 표지

제주올레를 안내하는 이정표 표기의 기본은 화살표이며, 모양은 지향점을 사람인(人) 형태로 한번 보면 오래 기억에 남도록 만들어졌다(사진5 상단 중앙 참조). 이정표의 기본색채는 파란색이며 스프

레이 페인트가 주로 사용되었고, 나무나 자연석, 도로 노면, 전봇대, 방호석 등에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인(人)의 상하 좌우가 올레꾼들이 목표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다. 푸른색으로 연계성을 확보하고 화살표와 철재문의 색을 통일하여 연결시키고 있다(사진5 상단 우측 노면화살표와 목장문 참조).



(사진 5) 제주올레에서 만난 다양한 화살표

안내표시의 경우 가장 많은 것이 푸른 페인트를 이용한 화살표시와 리본이다. 리본은 정방향인 경우는 푸른색 반대방향을 표시하는 경우는 노란색

리본을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같은 지점에 설치된 경우가 많다. 주민들이 설치한 안내판의 경우 다양성은 있지만, 통일성이 다소 떨어진다.



▶ 주민이 만든 이정표(구좌읍)



▶ 주민이 만든 이정표(시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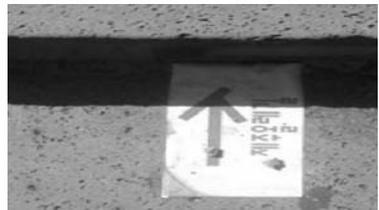
▶ 주민이 만든 이정표(법환)



▶ 주민이 만든 이정표(시흥)



▶ 소정방폭포 인근 표지



▶ 노면표지

(사진 6) 제주올레내의 다양한 안내표지

또한, 안내표지의 모양과 재질이 다양하여 혼란스럽거나,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와 표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영문 표기가 혼란스러운 경우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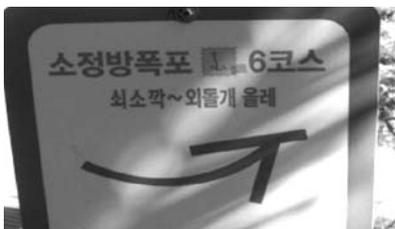
가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영어로만 안내표지를 이해하게 되는데 혼란스럽게 전달된다면 체험의 효과가 반감된다.



▶ 1코스 시점(1코스를 1st course로 표기하고 있음)



▶ 6, 7코스분기점(7코스만에 6th course로 표기했고, 우측은 표기가 애매함)



▶ 6코스내 관광지안내(6코스를 Jeju Olle ROUTE 6로 표기: course와 route 혼용)



▶ 안내표지판(올레길을 Olle Route로 표기하고 있음)

(사진 7) 영문표기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혼란스러운 사례

7) 올레길(olle route), 제주올레1코스(1st course), 제주올레5코스(5th course), 제주올레6코스(Jeju Olle Route 6) 로 제주올레 코스에 대한 표기가 다양하게 나타남

이정표 중에서 색깔이 이질적인 경우와 화살표 모양이 제주올레 표시가 아닌 경우, 주민이 설치하여 통일성이 떨어지고 올레꾼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갈림길이나 길찾기에 중요한 지점에 표시할 경우 제주올레에 대한 일관성 있고 명확한 표시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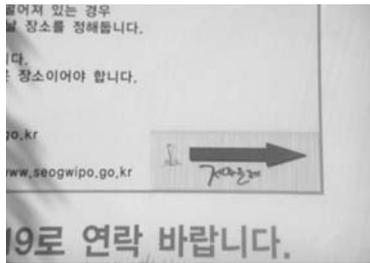
안내화살표의 크기나 설치 위치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연계가 부족한 부분에 표기의 오류나 이질적인 요소가 많았다. 물론 자연스러운 느낌은 받았지만, 혼란스러운 지점에 대한 안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올레 : 갈림길에 올레로 표기



▶ 올레길 : 주민이 설치한 안내판



▶ 제주올레 : 기존의 재난 안내판에 설치된 경우



▶ 벤치와 소나무에 표시된 화살표

(사진 8) 제주올레의 다양한 안내화살표 사례

제주올레 안내를 위해 화살표를 식물이나 야자수 등에 표시한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는 특이하지만 식생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능하면 통일되고 자연친화적인 이정표를 통한 안내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안내판이나 화살표의 경우 크기나 개수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고, 표시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면서도 통일성과 상징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 9) 자연친화적이지 못한 화살표 표시사례

2. 제주올레 실태 및 주변환경 오염

제주올레는 새로운 포장이나 길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소로 등을 활용하되 단지 보행이 편하도록 의도했지만, 제주올레코스를 개설하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노면을 포

함하고 있다.

제주올레 일부구간에서는 포장된 길을 4~5km 이상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면은 흙, 돌, 나무, 타이어매트, 현무암 쇄석 등으로 되어 있고 걷기에 무리가 없고 편안한 걷기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 흙 노면



▶ 야자수길



▶ 현무암쇄석 노면



▶ 삼나무 노면



▶ 나무계단



▶ 타이어매트



▶ 아스팔트 노면



▶ 콘크리트 노면

(사진 10) 제주올레에서 만난 다양한 노면

현재 개설된 제주올레를 탐방하려면 코스에 따라 다르지만 단거리코스인 경우에도 최소 3~4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음식이나 도시락을 지참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제주올레 주변에서 쓰레기나 담배꽂초 등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올레를 찾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아름답고 깨끗했던 구간이 훼손되고 다음에 찾는 올레꾼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역주민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사진 11) 제주올레 주변의 쓰레기

제주올레 탐방로에 대한 훼손은 답압에 의한 일부 구간 훼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산악자전거를 이용하는 탐방객들로 인해서 식생 및 토양의 훼손이 일부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름구간을 도보가 아닌 MTB를 타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훼손이 우려된다.

3. 사유지 출입

제주올레가 제주의 숨은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게 계획된 것이므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제주의 풍광을 제주올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제주올레가 해안변과 마을의 안길, 꽃자왈 등을 포함하고 올레꾼들이 자연을 벗삼아 걸을 수 있도록 의도했기 때문에 사유지와 인접한 경우가 많다.

사유지이지만 올레꾼들에게 개방된 곳도 있고, 아름다운 길이지만 아직까지 올레꾼에게 개방되지 못한 곳도 많다. 올레꾼들이 개방된 사유지를 이용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12) 농장주변 통과하는 제주올레

따라서 반드시 올레길로 포함되어야 할 구간이 올레길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올레코스로 할애한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감귤농장 통과구간에서 올레꾼들이 호기심으로 따거나 농작물을 채취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체험 및 판매로 연계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농장의 상품을 자연스럽게 체험과 판매로 연결한다면 농민도 올레꾼도 같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유지 구간이 조정된다면 이정표나 표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소유주로부터 할애받지 못한 구간은 코스를 조정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정구간에서 올레지기나 주민들이 안내해도 잘 따르지 않고 무모한 행군을 강행하는 올레꾼으로 인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올레꾼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배려하는 맘을 갖도록 홍보자료, 올레코스 자료 등에 지속적인 계도가 요구된다.

목장인 경우에는 마소가 목장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게이트를 설치한 경우가 많고, 올레꾼들이 출입시 자발적으로 문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시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제주의 숨은 비경이 올레꾼의 몫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13) 사유지(목장)의 게이트 유형

4. 편의시설 현황

제주올레 코스에 설치된 주요 편의시설에는 안내표시, 화장실, 안내소, 휴식공간, 식당, 매점 등이 있다. 안내표시와 화장실 등은 ‘(사)제주올레’에서 설치, 휴식공간(벤치, 소공원 등)은 지역주민이나 기존시설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올레꾼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식당에서 올레꾼들을 유치하고자 플랫폼을 붙이거나 천막이나 간이음식점(포장마차 형태이며 간단한 음료 등 판매)이 생겨나고 있다. 간이음식점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굴 등)과 선다리(제주 특유의 발효음료) 등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 이동식 화장실



▶ 열린화장실



▶ 안내소와 화장실



▶ 벤치



▶ 식당



▶ 간이매점

(사진 14) 제주올레에서 만난 편의시설

제주올레에서 만나게 되는 주요 안내표지판은 방향표시, 관광지안내, 올레길 상세 정보 등)를 다음과 같은 형태와 정보(화장실안내, 쉼터안내, 제공하고 있다.



(사진 15) 올레길의 다양한 부대시설 안내표지판

5. 올레코스간 이동 및 지원 조직

현재까지 개발된 15개의 올레는 우도 코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코스의 기점과 종점이 다르다. 즉 시작점에서 마지막까지 가면 시작점에 교통수단(개인 승용차, 렌트카)을 둔 경우는 이동이 불편하다.

제주올레를 걸어서 시작점까지 돌아간다는 것은 거리와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점과 복귀로 인한 불편함이 올레길의 감흥을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노선버스가 연결되는 경우는 그나마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갈 수 있지만, 연결편이 원활하지 못한 곳은 문제가 있다. 즉 시작 지점과 마지막 지점까지의 접근(현재 콜택시, 버스, 렌트카 이용 등)이 불편하다. 특정구간에서는 민간(회사)에서 셔틀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어 올레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의 올레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올레’ 배너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동호인들이 웹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공항에서의 안내와 현재의 안내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외부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올레꾼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레정보에 대한 출처와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제주올레사무국과 행정의 기능과 역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지원조직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도, 행정시의 지원조직 및 범위 등)

올레코스 지도 등의 가이드북이 혼란스럽다. 현재 올레 책자 부록으로 나온 길라잡이, 공항에서 주는 올레 지도, 각 기관에서 배포하는 올레지도 등이 통일되지 못하였다. 필수적인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등 자세한 안내기능을 못하고 있다.

IV. 제주올레 활성화 방안

1. 제주올레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효과

제주올레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단순한 관광객의 증가 뿐만 아니라 제주올레로 인해서 사회적·경제적·심리적 효과가 나타난다.

사회적 효과로는 제주올레를 통하여 기존의 관광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시설관광지 관람 위주에서 제주의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으로 관광의 패턴이 변화될 수 있다. 물론 시설관광지가 필요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시설관광지 관람 위주에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자연자원 및 경관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다.

제주의 자연이 관광자원화되고 기존의 시설관광지와 연계한다면 체류기간 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과 세계자연유산에 걸맞는 감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주올레가 주는 심리적 효과로는 제주올레가 주는 편안함과 휴식과 사색을 통해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삶에서의 잠시동안의 탈피와 심리적 편안함과 재충전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주올레에 기대가 되는 것은 이러한 심리적 측면이다.

제주올레가 주는 경제적 효과로는 올레꾼들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제주올레에 휴식과 정보제공, 지역특산물 판매 등의 기능을 가진 ‘올레쉼팡’을 도입하여 활용한다면 일본의 ‘길의 역(미찌노에키)’이 자동차 이용객의 쉼터였다면 ‘올레쉼팡’은 올레꾼의 역이 될 것이다.

2. 녹색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수단의 다양화

올레의 기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말이 끄는 관광마차를 도입하거나, 자전거, 소형 오토바이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차로의 이동도 현재 올레의 경우 10km 이상인 경우가 많고, 구간에 따라 회귀노선을 재선정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제주올레의 코스가 한코스의 종점에서 또다른 코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몇 개의 코스를 한번에 탐방하는 올레꾼도 있고, 한코스를 이용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숙소로 이동하는 올레

꾼에게 편리한 이동수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는 청계천에 관광목적으로 관광마차, 관광택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말이 일정궤도를 달리는 노면마차, 관광마차 등이 유럽의 관광도시에서 사용되고 있고, 제주의 일부 관광지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지역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제주올레 안내가 가능하도록 소정의 교육과 절차를 거쳐 올레 홍보요원화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올레택시'로 지정해주고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사진 15) 노면마차, 관광마차 사례

제주올레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면 1-1코스(우도)에 차량의 통행을 배제하고 녹색교통수단만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올레코스에서 차량을 배제하고 보행, 자전거 등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코스의 역방향은 관광마차나 노면마차를 활용하는 것도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3. 기존자원 활용 및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의 연계

현재 개발된 제주올레가 주로 해안을 지나가고 있고, 서귀포 증문관광단지 일대 등을 지나간다. 이와같이 인접된 곳에 관광지와 기존의 볼거리가 있

어 현재코스에서도 6코스의 경우는 이중섭거리와 박물관 등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인접된 경우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제주올레코스와 기존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관광상품 및 코스가 개발될 것이라 기대되며, 적극적인 안들이 마련되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주올레 코스마다 역사와 이야기거리가 될만한 것이 산재해 있어 지역주민이 이러한 것을 올레꾼에게 알려주고 코스상에서 이러한 이야기거리를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면 더욱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코스가 될 것이다.

4. 사유지 확보 및 지원방안

제주올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외부자본에 의한 제주올레의 매입으로 인한 과도한 투기 발생이 우려되고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제주올레가 원기능을 못하게 될까 우려된다. 현재의 코스도 옛길의 복원이나 기 포함된 포장된 길을 배제하는 업데이트가 있을 것인데 투기는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제주올레를 지나친 상업목적으로 활용할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예, 제주올레트러스트, 제주올레 사기 운동, 내올레갯기 운동 등).

제주올레코스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매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에서 매입하거나 도민들의 공유재산(예를 들어 제주올레트러스트, 제주올레 사기 운동, 내올레갯기 운동 등)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5.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도입

제주올레코스가 현재 14코스 뿐만 아니라 계속 개발되어 도내 전역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제주올레가 가지는 매력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새롭고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있고 향후에 더욱더 개발되기를 바란다.

제주올레코스를 이용하는 올레꾼들의 성취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스탬프챌리를 시행하고 몇 개 코스 이상 완주한 경우에는 기념품 제공이나 인증서 등을 발급하는 것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제주올레를 찾는 올레꾼을 우대해주고 숙소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곳도 생겨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발적인 우대와 혜택을 유도하고 올레꾼들에게 이러한 곳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주어 야 한다.

6. 지속적인 코스유지 관리와 공유화

제주올레가 제주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시작이며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의 새로운 패턴으로 나타나는 올레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개발된 코스의 변경 및 유지관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유지관리하는 주최 뿐만 아니라 올레꾼들도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지역에서의 올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장조사도 많이 오는 등 모방 및 선점효과 반감 우려가 있다.

즉 우리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타지역에서 이용이 편리하고 관광상품화할 우려가 있다. 물론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제주올레보다 우월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경쟁구도는 언제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

7. 기타

제주올레와 관련된 기념품이나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념품은 제주올레를 기억하고 올레꾼들이 선물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양하고 실용적인 기념품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제주올레는 현재 1코스, 2코스 등으로 불리고 있다. 코스내에서 이것을 대표할 만한 용어로 별칭을 부여하여 올레꾼의 이해를 높이고 홍보 효과를 제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1코스(말미오름올레 또는 광치기올레), 7코스(외돌개올레) 등으로 명명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제주올레의 각 코스별로 올레지기가 선정되어 있는데, 제주올레가 활성화되고 향후에도 코스가 개발될 것이므로 현재보다 더 많은 전문성을 갖춘 올레지기가 필요하며 육성이 요구된다.